

부처님 오신 날 특집

전법의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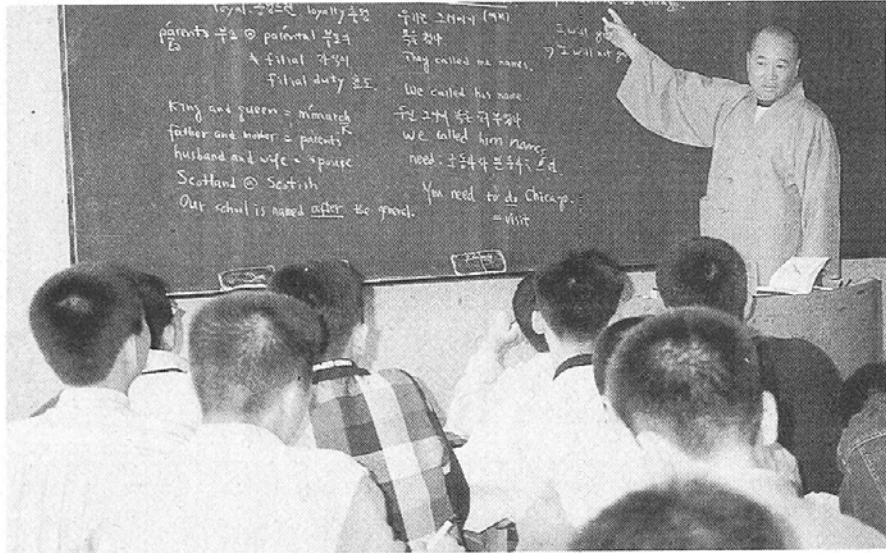
“What am I”
영어로 佛法 전한다

이 색 포 교

헤당스님 영어학원

“효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filial duty (필리얼 듀티!)”
“그래 우리는 효도라 표현하지만 서양인들은 filial(필리얼)-자식의, duty(듀티)-의무라는 두 단어를 합쳐 자식의 의무라 한단다. 이것이 맞는 말이지. 너희들도 효도는 ‘자식의 의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 하거라.”

영어단어 하나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그 단어속에 숨어있는 삶의 진리를 학생들에게 다시 깨우쳐 주는 선생님, 헤당스님의 영어강의이다. 광주시 동구 산수2동 ‘황승우선생님 영어교실’ 토요일 수업이 한창인 이곳에서 스님은 부처님이 강조하신 효사상을 동서고금의 영일한 진리로 풀어내며 어린 학생들의 마음속에 이로새겨준다. 칠판 가득히 들어선 영어단어들은 스님의 법력이요, 애정이나 포교방편의 화현들이다. ‘황승우’는 헤당스님의 속명이다. 일제 말기에 태어나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혹독하게 가난했던 소년시절, 4형제의 큰형으로 행상을



◇ 칠판 가득히 들어선 영어단어들은 헤당스님 포교방편의 법문이다.

영문법구 생활과 연결 강의
“가르침이 곧 육바라밀 정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어렵게 공부를 했다. 그 어려움속에서도 세동생들을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켰다. 첫째동생 황병우는 국민학교 교사로 둘째동생 황지우는 시인이자 대학교수로 막내동생 황광우는 노동운동가로 키워냈다. 광주일고 광주서중학교 영어교사로 재직중이던 지난 80년, 처절했던 광주 한재태 동생들과 광주의 아픔을 겪은 황승우 선생님은 머리를 깎고 입산, 수도에 몰입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바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전공인 영어를 방편삼아 펼치고자 스님은 다시

속세에 몸을 던졌다. 매주 강의가 끝나기 무섭게 스님은 광주에서 조금 떨어진 담양읍 수북면 오정리의 ‘금타선원’에서 수도와 정진, 포교에 힘쓴다. 스님은 신도들의 시주금을 일체 받지않는 결로 유명하다. 영어학원 운영으로 얻어진 수익금을 스님은 농촌 마을에 재투자하며 농촌불자들을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하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지식보다 지혜가 더 필요하지요”라고 말하는 스님은 “부처님이 설하신 영일한 진리를 지혜의 눈을 열어 전하는 것이 영어 강의를 통해 제가

말입니다”라고 스님은 말한다. 4년째 스님의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장우석군(금남중 3)은 “영어를 물론이고 가끔씩 들려주시는 선생님의 옛날 고학시절이야기도 저희들에게 큰 공부가 돼요”라며 한번 학원에 발을 들여놓은 학생들은 몇년씩 계속해서 다닌다고 소개하기도. 스님은 자신의 고학시절 이야기를 ‘스님!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십니까?’라는 한권의 책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펜실베이니아대학 교환교수로 미국서 유학을 하며 평생 배워온 영어를 이웃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 포교하는 것. 그것이 수행자로서 교육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는 헤당스님. 학원 강의실에 나란히 앉은 학생들의 마음속에 헤당스님 그가 품고 있는 “What am I?(화염아!)”-내가 뭐야? 라는 화두가 심어지고 있는 듯했다. <광주=이은자 기자>

새벽 4시, 오늘도 불자들이 함께 새벽예불을 시작하며 구룡사의 하루를 연다. 하루 3번 예불시간이면 어김없이 신도들과 함께 108배를 하며 10여년을 호호해왔다. 지난 85년 가을 당시에는 허허벌판이던 양재동 일대를 천막 하나 짚어낸 채 처음 들어서 주택도 들성들성 보이는 이곳에 천막법당을 만들었다. 초창기시절 천막법당에서 만 2년, 가건물에서 또 2년반을 불자들이 함께 하면서 포교의 첫발을 일으켰다. 교통이 불편해 오지 못하는 신도들을 직접 차를 운전해 포교당으로 집으로 데려다주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신도들과 함께 찾아가 상담도 해주면서 구룡사 부처님 품안으로 하나둘씩 끌어내기 위해 발로 뛰며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다. 초하루 법회 하나로 십여명의 불자가 모였던 활동이 이제는 정기법회에 2천여 불자가 성황을 이루고 한달동안 40여차례의 법회가 열린다. 고승초창법회, 칠월법회, 무량법회, 관음법회, 화엄법회, 가족법회, 청년법회 등 각기 다양한

정우스님 <서울구룡사주지>
고, 어려운 이웃을 신도들과 함께 찾아가 상담도 해주면서 구룡사 부처님 품안으로 하나둘씩 끌어내기 위해 발로 뛰며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다. 초하루 법회 하나로 십여명의 불자가 모였던 활동이 이제는 정기법회에 2천여 불자가 성황을 이루고 한달동안 40여차례의 법회가 열린다. 고승초창법회, 칠월법회, 무량법회, 관음법회, 화엄법회, 가족법회, 청년법회 등 각기 다양한



정우스님 <서울구룡사주지>

신심깊은 1만불자가 모여 ‘한가정 한부처님 모시기 운동’을 전개해 단번에 부처님을 모셨고,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자 불자가족들이 스스로 모여 지역법회도 활성화 되고 있다. 이 지역법회와 더불어 부처님이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구룡사 신도들이 앞장설 것이다. 서울에 이어 최근 일산, 탄현, 중동, 송탄, 평촌, 분당 등의 신도시 지역에 11개의 통도사 본포교당이 들어서 포교의 전초기지로써의 역할을 다지고 있다. 지금 구룡사소극장에서는 극단 신시가 7월 공연을 예정으로 뮤지컬 ‘님의 침묵’을 맹연출중이다. 연극이라는 예술을 통해 부처님의 법을 다시금 느끼며, 도심속의 부처님품안 구룡사에서 불자들이 함께 불교정토를 만들어 갈 것이다. 포교당이라 해서 법문만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과 함께 108배를 하고 찬불가를 부르며 그들이 스스로 불자임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있다. 신도 하나하나가 포교당의 주인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 사찰을 자신들의 가정처럼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주지인 내 몫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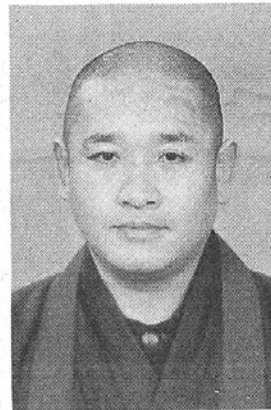
“포교당을 내집처럼 편안하게”

천막법당 시작...이젠 월 40여 법회 2천불자 참석

개 분화법회도 불자들의 요구와 동참으로 열어낼 수 있었다. 코흘리개 어린이로부터 청년, 학생,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을 찾는 불자들의 발걸음 구룡사는 언제나 분주하다. 그리고 얼마전부터는 외국인노동자들까지 구룡사를 찾아 법회를 본다.

여기에 불교대학, 어린이 유치원, 결혼상담실, 진리의 전화, 구룡예술단 등도 불자들의 관심과 열의로 운영되고 있다. 오늘의 구룡사를 있게 해준 모든 것이 오로지 신심 하나로 불교포교에 동참해준 여러 불자들의 공로다.

나는 이렇게 전법했다



지현스님 <봉화화랑사주지>

들 가운데 절반이 넘게 법회에 나오며 재산국민학교 정교생 2백명중 1백 20명의 아이들이 회관에 나온다. 요즘은 아이들이 더 적극적이다. 여름 수련대회때면 영주, 안동 아이들과 함께 농촌주인을 초청하여 어른과 아이들이 하나되는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활발하게 법회가 이루어지자 자신감을 얻어 명호명에서도 신도법회와 어린이 법회를 개설했다. 청량사를 중심으로 각 면에 법회가 이루어지자 불안을 느꼈는지 이때부

지는 경운기와 트럭을 동원해 법회를 마치고 투숙한 이삼 걸어야 하는 불자를 위해 교통편을 제공해주어 나의 마음을 동글하게 해주었다. 불심을 꽃피우려는 이러한 노력을 벌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던지... 더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전해 달라는 뜻이라 여기며 용기와 힘을 얻어 문화강좌 및 서예교실을 개설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면 50명이 넘는 회원들이 열심히 줄을 선다. 불자들의 호응이 높아 신도법회, 중고등법회, 기타교실, 청량사 종물교실, 마하불교어머니합창단 등도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법회에 나오는 회원들로 롬비니 합창단을

‘경운기 포교’로 농촌 불심심기

다양한 프로 개발...교회다니던 어린이 다투어 찾아와

늘어났다. 또 농촌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아이들의 여가활동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부모는 절에 다녀도 아이들은 교회로 몰린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워 어린이 법회를 개설하여 어린이 포교를 시작했다. 그렇게 되자 교회에 다니던 아이

터 이교도들의 시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지역민장 승인하에 사용하던 회관은 기독교인들의 저지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불자들의 불타오르는 불심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한 불자는 조그마한 시골 체육관을 무료로 빌려주기도 했고 또 어떤 불

92년에 창단하여 해마다 시민회관에서 정기공연을 가졌으며, 올해도 5월4일 정기공연을 앞두고 어린 부처들이 한창 연습중이다. 농촌불자들의 가슴 가슴 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흠뻑히길 두손 모아 기원하며 더욱 포교에 매진할 생각이다.

봉 부처님 오신날, 온누리에 부처님 광명의 빛 가득하게 하소서 축

<p>이전광명시 강화교 산사면 매통리 624 (03349) 32-33070</p> <p>보문사 대표 조재원</p>	<p>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3300-1152 (051) 6332-73933</p> <p>부산불교 전시관 대표 조재원</p>	<p>부산시 동구 초량동 3동 114-14 국제오피스텔 1805호 (051) 4666-7174-5 팩스 4666-7176</p> <p>부산불교 전시관 대표 조재원</p>	<p>서울 성북구 보문동 3가 51번지 (925) 0435</p> <p>정화포교대이정회 회장 심모범</p>	<p>대구 수성구 지원 원장도일</p> <p>지지사 대구포교대이정회 회주 정혜창</p>	<p>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산 127-1 은평사서함 77호 35917666 35313004</p> <p>서부이평 사원연회 회장 서성운(삼화사) 이범성(관음사) 사무총장 서해진(신원사)</p>	<p>부산시 동구 범일동 3동 1152호 (051) 6332-73933</p> <p>불사의 전단 대표 이진형 / 지현스님</p>	<p>경남 양산시 웅천동 매통리 304 (0523) 82-14663</p> <p>천불사 회주 이도봉 신도회장 안모범</p>
--	--	---	--	---	---	--	---